

다층모형을 이용한 부산지역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문 경 주** · 장 수 지***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방법과 조사개요
- IV. 분석결과
- V. 결론과 정책적 함의

|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그들의 정주의식을 제고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 연구와는 달리 개인수준의 요인과 지역수준의 요인이 포함된 다층화 데이터를 이용한 다층모형을 통해 부산지역의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개인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을 통합·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지역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서 개인수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관적 계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8-S1A5B5A02034522)

** 주저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kjmoon66@daum.net

*** 교신저자,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sjchang@ks.ac.kr

층의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수준에서는 인구증가율이 높고, 고령화비율이 높은 지역 그리고 문화 관련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클수록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 분석결과에서는 연령과 지역사회의 문화기반시설수 간 그리고 교육수준과 지역사회의 문화기반시설수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화인프라가 잘 갖추어질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문화인프라를 잘 활용하고자 할수록 그들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부산지역의 중장년층이 현 거주지역에서 Aging in place의 전제가 되는 정주의식을 제고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중장년층, 정주의식, 다층모형, 지역사회, 에이징 인 플레이스

I. 서론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회이다. 그 중에서도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1962년 국민일인당 소득 82달러에서 2019년 현재 3만 달러를 넘어설 만큼 비약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최근에도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사회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의 고령화이다. 통계청(2018)의 ‘2018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전체인구 중에서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14.3%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00년에 고령자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그리고 고령사회로 진

입한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인구고령화는 지역수준에서 농어촌 폐촌과 같이 지역소멸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지역 사회 위기를 초래하며, 이러한 지역위기는 대도시도 비껴가지 않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대 특·광역시 중 2014년에 처음으로 고령자 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고령자비율이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국제신문, 2014.10월 3일 1면).

우리 사회에서는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고령자 관리를 시설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시설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론이다. 노인복지적 접근에서는 공적연금 등 고령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주체로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복지서비스는 현지성이 강한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이 현재화된 것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기반 커뮤니티케어이다.

노인복지정책에서 탈시설화는 서구에서 이미 진행되어 왔으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부각된 것은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고령자를 위한 UN의 원칙(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 and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현재 고령자들의 거주지역이아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하면서 살아온 곳으로 노후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권오정 외, 2014). 한편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또 다른 대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에 ‘Age-Friendly Cities: Guide’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문경주, 2019). 여기서도 도시와 지역사회를 고령친화적인 물리적·사회적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이후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각국의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가입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부산광역시도 가입하였다. 이러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국내 외의 대응방안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고령자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면서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Aging in Place(이하 AIP)로 수렴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친화적인 지역환경과 돌봄체계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AIP 패러다임의 핵심은 ‘사람 중심’ 또는 ‘수요자 중심’의 원칙에 있다(박영란·박경순, 2015). 결국 현재 거주지역의 고령친화수준을 판단하여 지속거주를 결정하는 것은 고령자 본인임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감과 정주희망을 포괄하는 정주의식은 AIP의 핵심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20년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현재 50·60대 중장년층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규모의 면에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4.6%인 743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구집단이다(조성례·문재우, 2012). 이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현대사의 굴곡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로 한국전쟁 후 절대빈곤을, 1960년대와 1970년대 산업화 시기를, 1980년대에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1990년대 이후에는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2010년부터 사회에서 퇴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의 부모세대인 농업세대와 그들의 자녀세대인 예코세대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였다(송호근, 2013).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의 부모세대인 노인세대와 자식세대 간에 ‘끼 세대’ 또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양 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을 가진 채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중장년층은 그들의 부모세대

에 비해 고등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며, 문화생활에 대한 경험도 더 많다.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대상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수영 외, 2016; 유재남, 2015; 홍영준·이정훈, 2014; 이성규, 2014; 김운정·강현정, 2013; 정순돌·이현희, 2012; 김대환 외, 2011). 연구주제는 주로 삶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세대와 다른 다양한 욕구를 가진 중장년층이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계속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부산지역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정주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중장년층의 정주의식과 Aging in place

정주의식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김종재·신남수(1991)는 정주(定住) 개념을 인간의 삶이 지역과 결부되어 인간과 지역 간에 심적 결합으로 거주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심적 결합의식을 정주의식으로 보았다. 박해궁(2018)은 정주의식을 개인이 특정지역에 느끼는 친숙도 및 자신을 그 지역의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애·이승중(2016)은 정주의식을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의 물리적, 비물리적 자산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만족감이

며, 그 지역에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사로 규정하고 있다. 최일진·남황우(2015)는 정주의식을 개인이 지역사회에 대해 소속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식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주의식은 지역이라는 공간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조건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주의식은 태어나서 자라난 곳에 대한 애착심이나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의 이해관계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형성된다(김수영 외, 2017). 정주의식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와 예비고령자들이 ‘어디에서 노후를 보낼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 측면에서 정주의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미 사회에서 은퇴한 고령자와 앞으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사회에서 은퇴함에 따라 그들의 생활영역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 게다가 그들은 신체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감소되면서 돌봄의 대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기를 원한다(김수영 외, 2009). 따라서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만족감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라 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일명 AIP는 우리보다 인구의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의 주된 방향이 되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UN은 AIP를 고령자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이현진·박승현, 2010). AIP는 처음에는 고령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다. Dye 외(2011)는 AIP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서 운동시설, 사회적 지원, 제도장치 등의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요인까지 고려하였다. 이러한 AIP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나타난 것이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고령친화도시(Aging Friendly City) 개념으로, 도시의 구성원들이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합하도록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서비스를 재정비하여 고령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김상희, 2012). 따라서 종전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 중심의 관리 방식은 관리적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거나 노화에 따른 장애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요양시설 마련에 추가적인 복지재정 지출이 증가될 전망이다. 곧 다가올 중장년층이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AIP가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이 지역사회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삶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에서 비롯되었다(최지연·홍은영, 2016; 최일진·남황우, 2015; 오미영, 2008; 이희창 외, 2004; 김종재·신남수, 1991). 인구의 고령화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노인복지분야에서 AIP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고령자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주의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고령자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범위도 주목으로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국내 연구 가운데, 문경주(2019)의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자본과 물리적 환경조건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물리적 조건에 대한 인식에서 대중교통만족도, 보행환경만족도, 주거만족도는

정주의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원시설 수와 문화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지역민으로서 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수영 외(2017)의 연구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조건 중 4개의 영역인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문화시설 수, 공원시설 수, 주택만족도 등을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 주택만족도가 그들의 정주의식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정 외(2014)연구는 지역 내 계속 거주이사를 가진 16명 고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장기간 거주로 인한 익숙함,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감, 편리한 주변생활 여건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조건이 계속거주 이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홍성희(2011)의 연구에서는 무배우자 남성, 낮은 교육수준, 가계총소득이 많으며, 단독주택 거주자, 사회참여활동이 활발하며, 주거만족 수준이 높은 경우에 AIP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숙(2011)의 연구는 개인영역, 사회적 영역, 주거환경적 영역을 고령자의 AIP와 관련되는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구원 수가 많고, 현 주거지에서 거주기간이 길고, 주거만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AIP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서도 AIP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Lehing(2011)의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AIP 정책효과를 도시계획 전문가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통수단이나 교통이용시설, 주택개조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조건이 고령자의 이동성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웨덴의 은퇴자 12명을 대상으로 한 Fonad(2006)의 질적 연구에서는 조사에 응한 고령자들이 건강이 악화되더라

도 자신의 집에서 요양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AIP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택 내·외부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Fernandez(2004)의 연구에서도 AIP와 관련하여 물리적 환경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택과 주택 내부구조인 요인 그리고 외부공간으로서 근린환경 조건과 이웃들 간의 관계가 고령자의 AI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소도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김상희(2010)의 연구는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 및 주거환경만족도가 지역의 계속 거주에 영향을 미치지만 물리적 생활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주기간이 길고 이미 은퇴한 계층일수록 계속 거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고령자의 생활환경 정비가 중요함을 밝혔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주택)와 해당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조건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물리적 환경조건이 AIP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AIP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의 탐색에 그치고 있다.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이 지닌 개인적 특성과 그들이 정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조건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개인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사회의 환경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개인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위계적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전민정, 2004). AIP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이와 같은 관점을 지닌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개인적 특성과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조건과 같이 상이한 분석단위로 된 데이터를 전통적인 통계기법인 선형모델로 분석하면 지역사회차원과 개인차원으로 상이한 분석단

위의 통합에 의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김민경·문상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개인특성과 지역사회 환경조건과 같이 상이한 분석단위를 통합한 방법론을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과 조사개요

1. 방법론

앞서 살펴본 중장년층의 지역사회에서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환경조건을 통제하지 않고 분석수준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분석수준을 개인으로 할 경우 각 개인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 채 개인수준에서만 분석하게 되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김태일, 1999).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과 지역사회수준으로 구분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HLM) 혹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계선형모형은 내포된 구조(nested structure)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통계기법이다. 여기서 내포된 구조의 데이터란 집단차원과 개인차원 변수들이 함께 분석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김민경·문상호, 2014). 내포된 구조의 데이터, 일명 다층 구조의 데이터를 회귀분석 할 경우 모든 관측 값들은 단일 측정수준을

갖는다고 가정하게 되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수준에서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수준으로 간주하여 변수 간의 구조 관계를 밝히게 되면 정보의 손실 및 집합화의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변수를 확대시켜 원데이터의 속성을 과장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홍세희, 2011).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위계선형 모형(HLM)이다. 위계선형모형은 각 수준의 효과 분석은 물론 두 가지 수준 간의 상호작용효과 분석도 가능하다(김민정·문상호,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대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요인의 영향력 그리고 개인수준의 요인과 지역수준의 요인 간 상호작용효과를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HLM 6.08과 SPSS 23을 이용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지역수준으로는 부산광역시이며, 개인수준으로는 2017년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51세에서 만 64세 사이의 중장년층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대 대도시권 지역 중에서 2014년 4월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도시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하였다. 또한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비율 중에서 40대 연령층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50대 연령층 인구비율이 부산시 전체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중장년층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부산여성개발원, 2018)¹⁾.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1)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발행한 『2017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에 의하면 2016년 부산은 50대 인구가 61만 390명으로 부산전체 인구의 1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정책대안 탐색이 요구되고 있어 분석대상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은퇴하는 시기는 50대 초·중반부터 이며(방하남, 201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부터 노년기에 접어드는 대규모 인구코호트인 베이비붐세대 대부분이 50·60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의 관점에서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위해 ‘2017년 부산사회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7년 부산사회조사’는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부산광역시 17,78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부산광역시,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2017년 부산사회조사’의 전체 표본 35,574명 중 만 51세에서 64세 연령에 해당되는 6,814명을 조사대상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다층구조의 데이터를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는 ‘2017년 부산사회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지만 지역사회 수준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이터는 동년도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데이터를 통계청 통계포털인 KOSIS에서 구득하였다.

3. 주요변수 선정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환경조건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의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두 수준의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개인적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측면의 주관적 계층수준, 그리고 해당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다. 먼저 성별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정주의식이 높은 경우(홍성희, 2011; Bach & Smith, 1977)와 여성이 남성보다 정주의식이 높은 경우(South & Crowder, 1997)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연령은 나이가 들어감에 지역애착이 강해지고 그에 따른 정주의식 역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에 · 이승중, 2016; Hidalgo & Hernandez, 2001).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경우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를 모두 포함한 조사에서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한 지역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정주의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유한 지역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이 정주의식과의 관계에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South & Crowder, 1997).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김수영 외(2015)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이 고령자의 정주의식 즉 AI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성희(2011)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에 관한 주관적 인식 낮을수록 AI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에서의 거주한 기간은 AIP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권오정 외, 2014; 광인숙, 2011; 김상희, 2010), 고령층에 있어 거주기간이 AI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수영 외, 2015). 이와 같이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는 개인요인이 지역사회의 환경조건 요인을 포함하였을 경우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2017년 부산사회조사’에서 사용된 변수 값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환경조건 요인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지역의 지역사회 환경조건 요인으로 ‘고령화비율’, ‘인구증가율’, ‘인구천명

당 의사 수’,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로 설정하였다.

먼저 고령화비율은 지역사회의 전체 인구 만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고령층이 많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소위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깁 세대’ 또는 ‘샌드위치 세대’로 현 노인세대와 일정 정도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의 고령화비율은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는 양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에서의 인구증가율은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역의 인구 증가는 지역사회에서의 출생율과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인구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구성원들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낸다.²⁾

인구천명당 의사 수는 지역의 의료·보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신체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체의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중장년층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 2017년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10대에서 30대 연령대의 사망원인이 자살이 1위인 반면 40대 이후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위이며, 심장질환이 60대에서는 2위, 50대에서는 3위로 각종 질병이 중장년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통계청, 2018). 따라서 지역의 의료서비스 조건이 중장년층의 AIP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여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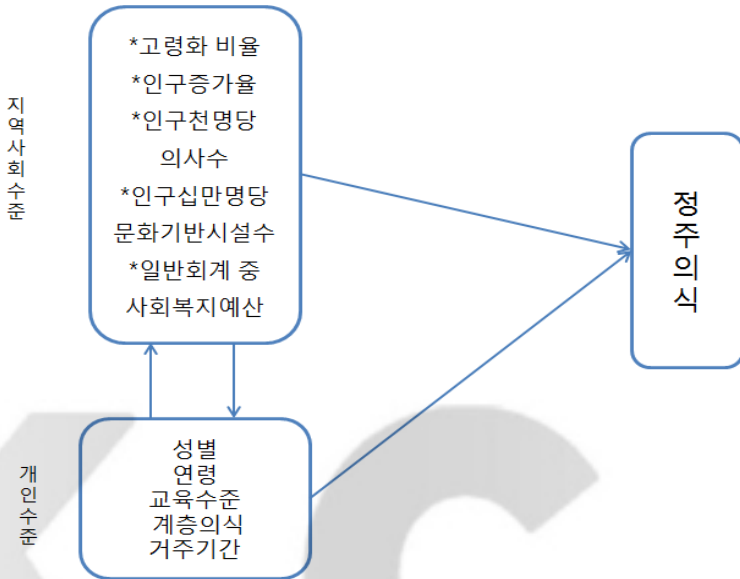
2) 도시생태론에서는 이동개념을 경쟁개념과 더불어 중요한 개념으로 본다. 도시와 같은 공동체내에서 물리적 인자들은 인구를 흡인하기도 하고 압출하기도 한다. 여기서 이동개념은 생물체와 같이 생존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한 변화를 의미한다(권용우 외, 1998).

정하였다.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지역사회의 문화서비스의 조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역사회의 문화시설들은 지역사회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지역사회의 인프라이며, 이러한 시설들을 주민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정주의식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김선희, 2013; 임남균, 2011). 부산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지역사회에 문화시설이나 공원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수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50·60대 중장년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앞서 그들 세대의 특성상 지역사회 내 체육공원, 문화공연장,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끝으로 기초자치단체 일반예산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은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복지서비스 수준을 나타내어주는 지표이다.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중장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고 건강도 상대적으로 나빠지게 된다. 과거와 같이 고령자 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족이 고령자를 부양하기보다는 복지제도를 통한 사회적 돌봄으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령자와 은퇴를 앞둔 예비고령자에게 복지제도는 삶의 안전망으로서 가치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복지수준을 지원할 재정지출은 중장년층의 AIP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개인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개인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성된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 및 분석대상지역의 일반적 특성은 < 표 1 >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는 2017년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지역에 거주하는 만 51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으로 조사대상자의 정주의식은 5점 기준에 평균 3.96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의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개인수준의 요인에서 성별은 남성이 41.2%, 여성이 58.8%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7.49세이며, 조사대상자의 현거주지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43.22년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이 8.4%, 중학교 졸업이 20.8%, 고등학교 졸업이 44.9%, 대학이상 졸업이 26%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70%를 넘어 베이비붐세대의 특성 중 하나인 고학력이라는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수준의 요인 중 경제변수와 관련된 주관적 계층의식에서는 하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1.4%, 중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5.8%, 상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8%로 스스로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중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수준의 요인에 관해서는 먼저 고령화비율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평균 고령화비율은 17.26%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동구로 23.72%이며 고령화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1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율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평균 인구증가율이 -0.5106으로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6개 구·군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7.27%이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구로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천명당 의사 수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평균은 3.671명으로 나타났으며, 16개 구·군 중에서 서구가 13.4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가 1.01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평균이 2.7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6개 구·군 중에서 중구가 13.57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영구가 1.67개소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평균은 49.29%로 자치단체 예산의 절반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6개 구·군 중에서는 북구

가 60.11%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31.98)와 강서구(31.8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변수유형	변수명	N	평균(표준편차) 빈도(비율, %)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정주의식	6814	3.96(.907)		1	5
독립변수: 개인수준	성별	6814	남성	2808(41.2)		
			여성	4006(58.8)		
	연령	6814	57.49(3.885)		51	64
	교육수준	6814	초등학교 이하	572(8.4)		
			중학교 졸업	1414(20.8)		
			고등학교 졸업	3061(44.9)		
			대학 졸업	1537(22.6)		
			대학원 졸업	230(3.4)		
	주관적 계층수준	6814	하류층	2820(41.4)		
			중간층	3800(55.8)		
상류층			194(2.8)			
거주기간	6814	43.22(14.448)		1	64	
독립변수: 지역수준	고령화비율	16*	17.257(3.7845)		11.25	23.72
	인구증가율	16	-0.5106(2.3781)		-2.48	7.27
	인구천명당 의사수	16	3.671(2.9658)		1.01	13.40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16	2.751(2.8692)		1.67	13.57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비율	16	49.294(8.9474)		31.88	60.11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2. 다층모형 분석결과

1) 기초모형(unconditional Mean Model) 분석

다층모형에서 기초모형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데이터의 기초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분산 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문경주 외, 2014; 박선희, 2012). 기초모형에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오직 상수항만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정주의식을 종속변수로 한 기초모형의 함수는 다음과 같다.

$$\text{개인수준 (level 1): } Y_{ij} = \beta_{0j} + \gamma_{ij}$$

$$\text{지역수준 (level 2): } \beta_{0j} = \gamma_{00} + U_{0j}$$

i 는 개인, j는 지역사회

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대상자의 i의 정주의식은 그가 속한 j 지역의 평균 정주의식(β_{0j})과 개인의 차이(γ_{ij})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j지역의 평균 정주의식은 모든 조사대상 지역의 평균 정주의식(γ_{00})과 지역의 차이(U_{0j})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정주의식에 관한 기초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값	표준오차	T-ratio
절편(γ_{00})	3.9618	0.2169	182.623(p=.00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Chi-square
지역수준(U_{0j})	0.07761	0.00602	61.43629(p=.000)
개인수준(γ_{ij})	0.90392	0.81708	

정주의식이 지역 간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기초모형의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주의식이 지역 간 차이가 있는 지를 나타내는 U_{oj} 가 유의미하므로($t=182.623$, $p\text{-value}=.000$), 지역에 따라 정주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수준의 분산(Level 1)의 분산은 0.81708, 지역수준(level 2)의 분산은 0.00602으로 이러한 두 수준의 분산값에서 도출된 ICC(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³⁾ 값이 0.007이다. 이는 정주의식에 대한 총 분산 중 지역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0.7%로 적었다. 일반적으로 ICC값이 0.05이상이면 집단 간 변이가 있다고 보며, ICC값이 0.05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집단 간 변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있을 경우 다층모형분석이 가능하다(Heck & Thomas, 2009, 송태민·이주열, 2013 재인용). 기초모형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정주의식은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변수를 투입하여 다층모형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2) 무조건 기울기모형(Unconditional Slope Model)

무조건 기울기 모형(Unconditional Slope Model) 분석은 개인수준의 변수들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수준의 변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에 앞서 분석모형에 투입된 개인수준의 변수들만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개인수준의 변수 중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거주기간은 집단평균중심화(group mean centering)하였으며, 성별은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비중심화(uncentering)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개인수준의 변수

3) ICC값은 집단 간 변량의 비율 대 총변량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값이며, 이는 지역분산/지역분산+개인 분산의 산식으로 구한다(박선희, 2012).

만을 투입하는 무조건 기울기 분석을 위한 모형함수는 아래와 같다.

개인수준(level-1)

$$Y_{ij} = \beta + \beta_1(\text{연령}) + \beta_2(\text{성별}) + \beta_3(\text{교육수준}) + \beta_4(\text{주관적 계층의식}) + \beta_5(\text{거주기간}) + r_{ij}$$

지역수준(level-2)

$$\beta_0 = \gamma_{00} + u_0$$

$$\beta_1 = \gamma_{10} + u_1$$

$$\beta_2 = \gamma_{20} + u_2$$

$$\beta_3 = \gamma_{30} + u_3$$

$$\beta_4 = \gamma_{40} + u_4$$

$$\beta_5 = \gamma_{50} + u_5$$

다층모형분석은 고정효과 모수에 대한 검증과 무선효과 모수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정효과에 관한 검증은 다중회귀분석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문경주 외, 2015; 박해공·신원식, 2014; 박선희, 2012). 그리고 무선효과 검증에서 개인수준의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 개인수준의 변수들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조건 기울기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무조건 기울기 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편차	T-Ratio
절편	3.783517	0.048238	78.435***
성별	0.112129	0.026113	4.294***

연령	0.011221	0.004072	2.756***
교육수준	0.013342	0.017303	0.771
주관적 계층의식	0.106768	0.029907	3.570***
거주기간	0.006371	0.000923	6.90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Chi-square
절편	0.12038	0.01449	20.05519
성별	0.05189	0.00269	15.34244
연령	0.01077	0.00012	26.17146*
교육수준	0.04410	0.000195	25.76645*
주관적 계층의식	0.08326	0.00693	25.05266*
거주기간	0.00200	0.00000	18.67503
Level 1	0.89105	0.79397	

+ p<0.1 * p<0.05 ** p<0.01 *** p<.000

고정효과 검증결과 개인수준의 변수 중에서 교육수준(p=0.453)을 제외하고 성별, 연령, 주관적 계층의식, 거주기간 등이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의 변수 중 영향력 크기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에서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선효과 검증결과는 개인수준의 변수들 중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검증한 것이다.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개인수준 변수 중 고정효과의 결과와 다르게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효과 검증결과에서 유의미한 요인에 대해서는 지역 간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박선희, 2012; 정익중 외, 2010). 따라서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의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조건모형에

서 무선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인변수 중 무조건 모형의 무선효과 검증에서 유의미한 변수만을 포함한다.

3)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에서는 개인변수와 지역변수가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수준의 변수인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지역의 고령화비율, 인구증가율, 인구천명당 의사 수,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자치구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을 포함한다. 지역수준의 변수 모두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하여 모형에 투입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무조건 모형분석 결과에서 정주의식에 대해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수준의 변수들을 포함하여 조건모형은 함수는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level-1)

$$Y_{ij} = \beta + \beta_1(\text{연령}) + \beta_2(\text{성별}) + \beta_3(\text{교육수준}) + \beta_4(\text{주관적 계층의식}) + \beta_5(\text{거주기간}) + r_{ij}$$

지역수준(level-2)

$$\beta_0 = \gamma_{00} + \gamma_{01}(\text{고령화비율}) + \gamma_{02}(\text{인구증가율}) + \gamma_{03}(\text{인구천명당 의사수}) + \gamma_{04}(\text{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 \gamma_{05}(\text{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비율}) + u_0$$

$$\beta_1 = \gamma_{10}$$

$$\beta_2 = \gamma_{20} + u_2$$

$$\beta_3 = \gamma_{30} + u_3$$

$$\beta_4 = \gamma_{40} + u_4$$

$$\beta_5 = \gamma_{50}$$

〈표 4〉 조건모형 분석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편차	T- Ratio
절편		3.786811	0.037127	101.996 ^{***}
지역 변수	고령화비율	0.022884	0.004458	5.133 ^{***}
	인구증가율	0.037414	0.010637	3.517 ^{***}
	인구천명당 의사수	0.003641	0.003898	0.934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0.014083	0.005642	2.496 [*]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비율	0.006199	0.002561	2.421 [*]
개인 변수	성별	0.110684	0.021731	5.093 ^{***}
	연령	0.011193	0.003808	2.939 [*]
	교육수준	0.012137	0.016505	0.735
	주관적 계층의식	0.108655	0.027407	3.965 ^{**}
	거주기간	0.006466	0.000843	7.670 ^{***}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Chi-sqaure
절편	0.05545	0.00307	30.07338 ^{**}
연령	0.01103	0.00012	28.66254 [*]
교육수준	0.03732	0.00139	22.63280 ⁺
주관적 계층의식	0.07870	0.00619	26.25800 [*]
Level 1	0.89206	0.79578	

+ p<0.1 * p<0.05 ** p<0.01 *** p<.000

조건모형의 분석결과는 < 표 4 >와 같다. 먼저 조건모형의 고정효과 검증결과에서 지역수준의 변수 중 인구천명당 의사 수를 제외하고 고령화비율, 인구증가율,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자치구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등은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율 증가와 이주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가 발생하는 지역사회가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지탱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큰 지역사회 역시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수준의 변수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의 변수까지 포함한 조건모형의 고정효과 검증에서도 개인변수는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정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모형에서의 개인수준의 변수의 영향력 크기 역시 무조건 기울기 모형의 결과 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조건모형의 무선효과 검증결과에서는 무조건 기울기 모형에서 개인요인의 영향력이 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던 연령과 주관적 계층의식은 조건모형의 무선효과 결과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무조건 기울기 모형의 결과와는 달리 유의수준 0.1%에 유의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다음 과정에서는 조건모형의 무선효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연령, 주관적 계층의식 그리고 유의한 경향을 가지는 교육수준 등의 개인수준의 요인과 지역수준의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개인요인과 지역요인 간 상호작용효과 분석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에 대한 무조건 기울기 모형과 지역요인과 개인요인을 포함한 조건모형의 분석결과, 연령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유의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개인요인과 지역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모형의 함수는 다음과 같다.

개인수준(level-1)

$$Y_{ij} = \beta + \beta_1(\text{연령}) + \beta_2(\text{성별}) + \beta_3(\text{교육수준}) + \beta_4(\text{주관적 계층의식}) + \beta_5(\text{거주기간}) + r_{ij}$$

지역수준(level-2)

$$\beta_0 = \gamma_{00} + \gamma_{01}(\text{고령화비율}) + \gamma_{02}(\text{인구증가율}) + \gamma_{03}(\text{인구천명당 의사수}) + \gamma_{04}(\text{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 \gamma_{05}(\text{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비율}) + u_0$$

$$\beta_1 = \gamma_{10}$$

$$\beta_2 = \gamma_{20} + \gamma_{21}(\text{고령화비율}) + \gamma_{22}(\text{인구증가율}) + \gamma_{23}(\text{인구천명당 의사수}) + \gamma_{24}(\text{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 \gamma_{25}(\text{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비율}) + u_2$$

$$\beta_3 = \gamma_{30} + \gamma_{31}(\text{고령화비율}) + \gamma_{32}(\text{인구증가율}) + \gamma_{33}(\text{인구천명당 의사수}) + \gamma_{34}(\text{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 \gamma_{35}(\text{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비율}) + u_3$$

$$\beta_4 = \gamma_{40} + \gamma_{41}(\text{고령화비율}) + \gamma_{42}(\text{인구증가율}) + \gamma_{43}(\text{인구천명당 의사수}) + \gamma_{44}(\text{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 \gamma_{45}(\text{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비율}) + u_4$$

$$\beta_5 = \gamma_{50}$$

부산광역시 16개구·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인수준의 변수와 지역수준의 변수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개인수준의 변수인 연령과 지역수준의 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 보면, 지역변수의 변수 중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 0.057). 즉 중장년층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잘 되어 있을수록 부산광역시의 차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수준의 교육수준과 지역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 보면, 교육수준 역시 지역사회의 문화기반시설 수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 0.06). 이것은 중장년층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을수록 부산광역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개인수준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지역수준의 변수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개인요인과 지역요인 상호작용분석결과

개인요인과 지역요인 상호작용 변수		계수	표준오차	T-ratio
연령	고령화 비율	0.000706	0.001505	0.469
	인구증가율	-0.001967	0.004199	-0.470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0.006356	0.003049	2.085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0.000579	0.001174	0.0493
교육수준	고령화비율	0.000146	0.006556	0.022
	인구증가율	-0.018843	0.018158	-1.038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0.027986	0.013474	2.077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0.007508	0.005088	-1.476
주관적 계층의식	고령화비율	-0.018205	0.012638	-1.440
	인구증가율	-0.033152	0.035516	-0.933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0.005121	0.025708	0.199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	-0.004351	0.010011	-0.435

+ p<0.1 * p<0.05 ** p<0.01 *** p<.000

V. 결론과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중장년층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계속 살아가기 즉 AIP를 위한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으로 다층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정주의식 자체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환경조건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은 2017년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 거주하는 만 51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층으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지역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서 개인수준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수준에서는 인구증가율이 높고, 고령화비율이 높은 지역 그리고 문화 관련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클수록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수준의 변수에 관한 분석결과는 앞서 논의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문경주(2019)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기간은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관적 계층의식은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수영 외(2017)의 연구에서도 연령과 거주기간은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변수는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와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개인수준의 요인에 있어서 소득관련 변수와 관련된 결과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대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분석 결과에서는 연령과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으며, 교육수준과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간에도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화인프라가 잘 갖추어질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인프라를 잘 활용하고자 할수록 그들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향후 노인세대로 진입을 앞둔 부산지역의 중장년층이 현 지역에서 계속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산지역의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인구증가율이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인구증가율 그 자체가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보다는, 해당 지역사회에 인구유입을 유인할만한 일자리 관련 요인이 그 지역사회의 거주매력도를 높인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지역사회 단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역공동체 운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현재의 중장년층이 지닌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운동에 접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 제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현 노인세대와 중장년층이 함께 정주할 사회적 여건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중장년층의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로서 그들은 그들 부모세대인 현 노인세대와 그들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 사이에 일명 ‘샌드위치 세대’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일정 정도 그들의 부모세대와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들 자녀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화비율이 높은 지역에 노인거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현재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인 중장년층 그리고 에코세대인 젊은 세대가 함께 정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거모델로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복지서비스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앞둔 예비 노인세대인 중장년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공적연금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영역이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주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편성되어 있어 향후 은퇴를 앞둔 예비 노인세대인 중장년층 세대를 고려한 복지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퇴직을 앞두고나 퇴직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정책사업에 예산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논의한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장년층이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조직들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것을 활용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의 공급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중장년층은 그들의 부모세대인 현 노인세대와 달리 학력도 높으며, 문화생활과 여가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지역사회에 공연장, 공공도서관, 미술관, 극장, 공원 등의 문화시설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은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여가생활과 더불어 사회 교류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의미로서 중장년층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정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지역사회에 공원 및 체육 시설의 확충은 중장년층의 생애주기에 있어 신체적 노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신체적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시켜 심리·정서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정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변수선택에 있어서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는 본 연구가 부산광역시의 ‘2017 부산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정형화된 데이터인 2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2차 데이터를 사용으로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많은 변수를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이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 표본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 다른 연령집단이나 인구학적 의미가 있는 타 집단에서의 결과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 정기적으로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종단자료를 이용한 중장년층과 노인세대의 정주의식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곽인숙, 「노인의 자녀와 동거희망과 지속거주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초고령 노인기를 가정하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6), 2011.
- 권오정 · 이용민 · 하해화 · 김진영 · 염혜실, 「노년층의 지역내 계속 거주이유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3), 2014.
- 권용우 · 김세용 · 박지희, 『도시의 이해』, 박영사, 1998.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중 · 고령자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연구』, 22(1), 2011.
- 김민경 · 문상호, 「자발적 공동생활 참여가 환경지불용의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문화성향을 반영한 위계선형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1), 2014.
- 김상희, 「중고령층의 지역내 계속거주 지향 군집의 특성분석: 경남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2), 2012.
- 김상희, 「미국 중소도시 중노년층의 지역사회 이미지와 옥내외의 주거환경만족도를 통한 기존 지역 내의 계속거주태도 및 요구도 분석: 미조리주 컬럼비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2(3), 2010.
- 김수영 · 문경주 · 장수지, 「다층모형을 이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71(4), 2016.
- 김수영 · 오찬옥 · 문경주,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대한 인식이 고령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8(3), 2017.
- 김수영 · 모선희 · 원영희 · 최희경, 『노년사회학』, 학지사, 2009.
- 김민경 · 문상호, 「자발적 공동생활 참여가 환경지불용의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문화성향을 반영한 위계선형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1), 2014.
- 김선희, 「지방자치단체의 여가서비스전달체계 만족이 여가서비스성과 및 지역사회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25(6), 2013.
- 김윤정 · 강현정,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2013.
- 김종재 · 신남수, 「도시민의 주거환경의식에 관한 연구: I-Community 의식과 정주 의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5), 1991.
- 김태일, 「위계적 선형모형기법의 이론과 적용: 고교학업성취도 결정요인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8(1), 1999.

- 문경주,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조건과 지역사회자본이 중고령층 정주의식에 미친 영향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의 매개효과」, 『공공정책연구』 35(2), 2019.
- 문경주·김수영·장수지, 「다층분석에 의한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2015.
- 박선희, 「근린효과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영란·박경순, 「사람중심 고령사회 패러다임: Aging in Place 이념과 장기요양」, 『장기요양연구』 3(1), 2015.
- 박해금,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9)(2), 2018.
- 박해금·신원식, 「사회적 기업의 조직문화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8(2), 2014.
- 방하남,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리뷰』, 2011.
- 부산여성개발원, 『2017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 2018.
- 부산광역시, 『2017 부산사회조사보고서』, 2018.
- 송태민·이주열, 「다층모형을 통한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0(1), 2013.
- 송호근,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 시대 50대 인생보고서』, 이와우, 2013.
- 오미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1), 2008.
- 유재남, 「중고령자 주간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중단분석」, 『노인복지연구』 68, 2015.
- 이미애·이승중,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Kee 6자본모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5(2), 2016.
- 이성규,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2014.
- 이현진·박재승,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시설 선호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16(1), 2010.
- 이희창·박희봉·정우일,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2004.
- 임남균, 「시립수영장 사용자의 서비스품질지각, 고객만족, 재구매행동, 구전 의도, 지역

애착도 간의 관계』,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논문집』 23, 2011.

전민정, 『다층자료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다층모형의 경험적 비교-2-level HLM, 3-level HLM, CMM 방법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정순돌·이현희,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 1998년과 2008년의 비교』, 『노인 복지연구』 55, 2012.

정익중·이경림·이정은, 『중사자 소진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2010.

조성례·문재우,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38(2), 2012.

최일진·남황우,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 고창군을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보』 28(3), 2015.

최지연·홍은영,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과 도시정서변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7(1), 2016.

통계청, 『2017 사망원인통계』, 2018.

통계청, 『2018 고령자사망통계』, 2018.

홍성희, 『노인의 주거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주거만족과 주거선택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 2011.

홍세희, 『횡단 다층자료분석을 위한 다층모형』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9, S&M리서치그룹, 2011.

홍영준·이정훈, 『은퇴베이비부머의 영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우울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5, 2014.

Bach, Robert L., Smith, J., “Community Satisfaction. Expectation of moving and migration”, *Demography*, 14(2), 1977.

Dye. C. J., Willough by D. F., & Battisto. D. G., “Advice From Rural Elders: What it takes to ageing in place”, *Educational Gerontology*, 37, 2011.

Fernandez. G., “Compon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lderly”,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13(1), 2004.

Fonad, E., “Moving to and Living in a Retirement Home: Focusing on Elderly People’s Sense of Safety and Security”,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0(3), 2006.

Hidalgo, M. C. & Hernandez, B..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2001.

Lehning, A. J., “City Governments and Aging in Place: Community Design, Transportation and Housing Innovation Adoption”, *The Gerontologist* 52(3), 2011.

South, Scott J., Crowder, Kyle D., “Escaping distressed neighborhoods: Individual, community and metropolitan influenc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4), 1997.

투고일 : 2019. 06. 11. 심사완료일 : 2019. 12. 03. 게재 확정일 : 2019. 12. 17.



| Abstract |

A Study of Determinants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of The Middle Ag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By Multi-level Analysis.

Moon, Kyung-Joo · Chang, Su-Jie

This study was considered two purposes : finding out factors that affect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of the middle aged i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and exploring the policy alternatives to raise up their settlement consciousness. For extracting out factors affecting settlement consciousness, variables was determined in the two different levels: the local community level and the individual one. Based on this research design,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local community level and the individual one were analyzed by using the multi-level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t individual level analysis, male, age, subjective social economic consciousness and length of residence affect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Second,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analysis, population growth rate, elderly population ratio, cultural facility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udget ratio influence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Third, the age and education level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cultural facility condition at the local level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when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level and local community level variables.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alternatives to building up the program for Aging in place of the middle aged in Busan is suggested.

keyword: the middle-aged, settlement consciousness, multi-level model, local community, Aging in place